

전통적 지역속의 친근한 문화마당

An Intimate Plaza of Culture In the Traditional Region

오세규 /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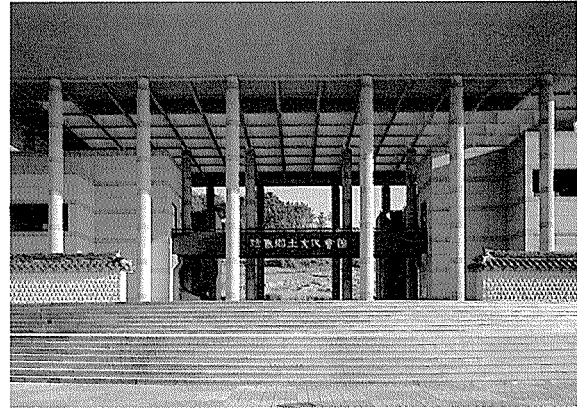
by Oh Se-Kyu

전남 진도는 한국화, 민속, 국악, 서예 등 남도 문화와 예술의 집산지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독특한 특색과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전남 진도에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지어진 진도향토 문화회관의 구체화를 위한 시작은 현상설계를 통해 건축가 류연창 소장을 선정하게 되면서다. 건축가 류연창 소장의 현상설계 경기에서 당선 계획안은 초기부터 재정적 한계와 지역민의 추가적인 새로운 요구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건축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 건축환경을 활용하는 대중적 가치와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 등 제반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진도회관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영향정도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결과물을 생각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변화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건축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추진 과정 등의 제반여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지금의 건축물에 대해 조명코자 한다. 왜냐하면 지금에 제시된 이 건축물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전후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진도향토문화회관을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데 있어 독자에게 찾을 만한 것을 많이 제공해 주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능케 하고자 건물자체의 이야기에 좀 더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초기 현상설계안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자리잡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94-1번지 일대의 입지는 군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900m 거리에 있는 야산이었다. 그 주변에는 진도읍 방면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건물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사방으로 트인, 원근의 산과 논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지의 형상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간선도로에서 접근은 정면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접근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대지 후면에는 전면의 진입



주출입구 피로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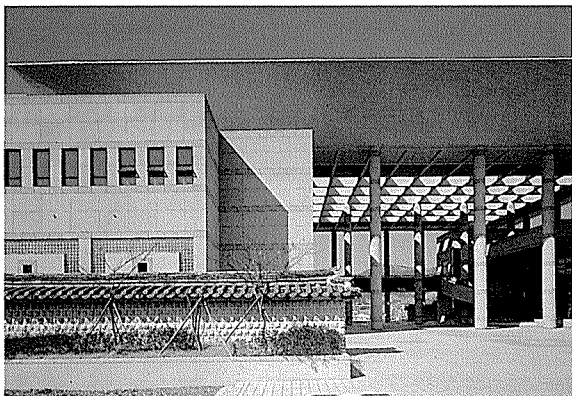
공간보다 레벨이 높아진 25m 계획도로가 통과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대지의 주변상황이었고 부여된 기능구성 프로그램은 집회(대강당, 소강당), 전시, 관리, 사무, 부대(판매, 휴게, 식당 등)기능 등이 요구되었다. 배치는 2개의 도로에 대한 정면성 확보를 위해 남동측(후면) 계획도로를 배치의 장축으로 설정하여 계획도로 경계선에 근접시켜 놓여진다. 따라서 진입측면은 정면이 아닌 좌측 사선방향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외부공간은 진입방향의 좌측에 주차공간, 정면에 주 광장, 우측에 휴게공간과 놀이마당을 부여하였다. 배치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의도는 관리 및 전시동(좌측)과 대강당(우측)을 2개 동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옥외공간으로 오픈시켜 후면 계획도로와 연계시킨 점이다. 이는 주 진입공간인 전면과 새로 형성될 후면의 계획도로에서의 접근성을 부여하면서 전,후면 자연경관의 상호연계를 의도하여 차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두 매스 사이를 묶고 있는 오픈된 옥외공간은 레벨업되어 후면의 계획도로와 연결된다. 따라서 전면광장에서 좌우측면으로의 진입은 레벨차를 이용한 선큰공간을 형성하여 판매, 식당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였다. 2개의 매스로 분절되면서 각 매스의 주 출입구는 가운데 있는 오픈된 중앙 옥외공간에서 연결되게 처리하였다. 기능배분 측면에서 우측 매스에는 1, 2층을 공유하는 대강당의 기능을 놓고, 좌측 매스에는 1층에 민속관(후면부)과, 전시실(정면부)을, 2층 주변에는 사회단체 사무실, 중앙에 옥상정원, 입구부에는 관리사무실 등을 위치시켰다. 2개의 매스에 부여된 기능상호간의 명확한 수평적 연결과 오픈된 중앙공간에 면한 부분에서 수직동선의 연결을 꺾고 있다. 재료는 문화회관에 주로 사용하는 화강석을 제시하였다. 주 건물의 전·후, 좌·우에 전통요소의 담장으로 영역을 한정함과 동시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대칭성이 강한 두 매스 사이에는 시야의 개방성을 주어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전면 광장과 중앙의 오픈된 공간에 도입하고 있다. 류연창 소장이 초기의 현상설계안을 통해 제시한 개념에는 명확한 기능배분, 철저한 모듈러 플랜링에 기초한 구조개념, 명확한 공간구성, 단정하고 군더더

기 없는 깨끗한 형태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가식이 없는 진솔한 정제미가 있었다.

새로운 요구와 수용과정,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어떤 계획안이든 처음의 개념과 의도한 생각들이 완벽하게 실현된 예는 드물다. 진도향토문화회관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건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계획된 건축의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비평도 완성된 작품의 관찰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부과된 제약조건과 해결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지식 없이는 진정한 비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 이용자들의 제반 요구조건들과 건축가가 마주친 어려움들이 최종적인 결과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점에서는 건물자체보다는 차라리 건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개념의 생성, 변화, 수정해 가는 과정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건축속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규모의 축소, 선택된 재료의 변경, 대중적 가치의 강력하고 상징적 이미지 구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초기의 현상설계안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들이 솔직하고 명쾌한 기능 구성, 정제된 형태요소와 구조계획, 처음 의도한 재료가 수정되기에 이른다. 규모의 축소로 인한 기능구성의 변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의 오픈된 공간에 지붕요소의 도입은 가장 큰 변화요소였다. 이러한 요구를 건축가 유연한 소장이 어떻게 수용하며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의 계획안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입부가 사선으로 접근하는데 대한 처리이다. 간선도로에서 좌측 사선방향으로 방사형의 진입광장에 접근한다. 전면 방사형 광장과 연결된 선큰공간, 중앙의 오픈된 소광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레벨업 된 데크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광장쪽으로 볼록한 라운드 형태의 계단들이 만들어지는데 좌측면의 사선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제보다 훨씬



배면에서 본 대강당동 벽면과 피로티

더 시각적으로 돌출되어 보인다. 사선방향으로 진입되는 점은 정면에서 접근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한 좌우대칭적 형태구성을 제시한 초기안과 비교해 좌측의 피로티 처리와 좌측지붕의 격자보에 의한 처리, 우측 무대부를 의식한 좌측의 모뉴멘탈한 형태요소의 도입 등은 또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둘째, 기능배분과 구성, 그리고 공간상호간의 연결방법의 변화이다. 이는 재정적 현실여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다. 특히 규모의 축소요구는 기능배분 측면에서 단위실의 규모변화와 총별 기능배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였다. 규모의 축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안의 분명한 기능부여에서 구조체는 그대로 두고 가감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 시각적 공간관입에 따른 깊이감과 시각적 여유로움을 제공하였다. 대강당은 초기안과 동일하게 기능상 1, 2층을 공유한 1개의 매스로 분절됐으나 관리 및 민속관 전시실은 반대쪽 매스의 1층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고 또 2층엔 소강당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위치시켰다. 중앙부 오픈된 공간상부에 브리지를 두어 분리된 내부공간을 연계시켰고 전시공간 부분의 감소된 면적은 피로티로 처리한 선큰공간에 휴게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하는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여기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점은 중앙의 오픈된 공간과 우측의 대강당과 좌측의 소강당 및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이 긴밀한 초기안에 비해 수정된 안에서는 특히 좌측동의 1층부분의 기능변화(관리, 다용도)로 그 관계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능별 조닝에 따른 총별 공간배분 프로그램에서 많은 수직계단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다시한번 되새겨볼 문제이다.

셋째, 중앙의 오픈된 공간상부에 지붕요소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분절된 매스에 오픈성을 살리면서 중앙부에 지붕과 열주를 취하여 분절된 두 동의 큰 매스를 강하게 묶어 일체화시키고 있다. 한옥지붕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역으로 처든 지붕의 처마와 양측 전, 후면에서의 가벽의 의미인 돌담을 세트화시켜 한국적인 전통이미지를 의도하였던 것 같다. 또한 전, 후면에서의 강한 대칭성이 작용하는 체계에서 균형감을 깨뜨리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의 타워와 무대상부,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만든 피로티와 면적인 구성이 강한 우측매스, 좌우의 담장, 좌측의 연결브리지에 있는 계단 등이 대칭성 속에 비대칭성을 추구하는 그 예일 것이다. 여기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붕의 도입이 공간을 묶는 수단인가 아니면 단지 형태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픈된 중심공간에서의 좌, 우의 입구성에 대한 분명한 처리에서 수정된 안은 열주 속의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됨에 따른 입구성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2.7m×2.7m의 구조개념이 지배하는 공간구획 개념에서 형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지붕을 형성하다 보니 공간개념의 변화에 따른 구조체계의 수정을 가져왔다. 가장 강력한 요

소인 두 매스사이의 오픈된 공간의 성격은 전면의 광장과 건물 내부와는 또다른 의미의 활동들을 위해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공간을 강력하게 한정하는 열주는 지붕을 받드는 기능이 추가 되어버린 듯하다. 중심공간의 열주체계는 지붕요소만을 위한 받치는 구조체계는 아닐 것이며 중심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구조체계가 아쉽다. 아울러 가벽 성격의 돌담이 전통요소로 채용된 조형적 의미만을 담는지 아니면 영역을 한정하는 의미있는 요소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넷째, 스케일감과 디테일 부분에 관한 것이다. 서양건축에서 오다가 스케일 감을 느끼게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은 부분의 요소들 간의 관계성의 의미를 함축한다. 재료의 수정에 따른 열주의 두께변화가 있었던 것이 처음에 의도한 느낌과 다르게 변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붕을 받혀주는 열주의 높이, 진입계단의 높이, 담장의 위치, 열주와 상부 지붕 및 아래 지면과의 접합부 처리도 다른 느낌을 만드는 측면이었을 것이다. 소성건축의 대표적 재료라고 하는 철근콘크리트 재료는 가구식 구조제의 목재 결구방식과는 구법에서 나타난 느낌들이 실제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열주의 직경과 높이, 지붕과의 접합부의 위치와 접합되는 형식, 열주 기반부, 지면과 접한 담장의 세심한 처리가 아쉽다.

다섯째, 내·외부의 재료 변화에 따른 색채 및 질감의 표현이다. 가장 경제적인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재료선택의 문제이다. 건물의 성격이나 품격에 맞게 처음에는 외장재를 화강석으로 선택했다가 데콜셈 스프레이 석재타일로 대체되었으며 내부 또한 가장 저렴한 재료로 마감되었다. 여기에서 의도한 재료미를 보완하고자 건축가 유연창 소장의 특유의 내부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손길이 소품과 감각적인 목재 격자그릴, 색채의 선택에서 엿볼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디자이너의 손맛으로 정리한 예로 정적인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재료의 변화는 오히려 형태미와 공간구성보다는 좀 더 소박하고 군림하지 않으며 친근한 분위기의 문화공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내부의 재료 또한 소박하고 경제적인 재료와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재료구성 및 손맛들이 깔끔한 외부의 질감에 대비해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토속적 예술활동을 담은 친근한 문화마당

진도향토문화회관은 자체의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군민들이 소중히 하는 가치특질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 속에 몇가지를 생각해보면서 현재의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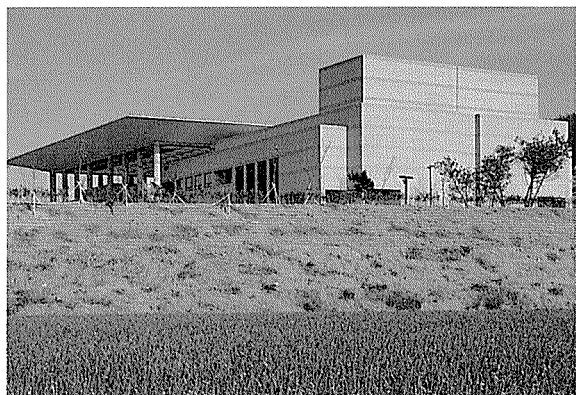
이 건축물은 무엇의 한 부분인가, 이 건축물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건축물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건축물은 과연 주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구도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 건축물은 보다

큰 유기체, 즉 지역공동체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환경을 경험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일 것이다. 흔히 지역마다 있는 문화예술회관, 군민회관 등은 값어치 나가는 화려한 재료, 기념비적인 규모,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쉽고 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과 공간의 크기만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도향토문화회관만은 그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년동안 100회이상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이다. 군민들은 생활속의 공간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접근하여 애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외에도 타 지역에서 주말이면 관광코스 문화활동을 관람하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민들은 진도를 표현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함과 동시에 군 단위에서 이러한 문화공간을 지니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곳, 부담을 주지않는 곳 그래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이기 사회, 문화적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해 본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또 다른 것은 건축가 유연창 소장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추구한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쾌한 공간개념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추구, 둘째, 정제된 형태요소에서 지역성과 한국적 전통미의 추구, 셋째, 분명한 기능부여에서 여유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추구, 넷째, 말끔한 재료 미에서 소박하고 친근한 재료의 선택 등이 아닌가 싶다.

건축가 유연창 소장이 진도향토문화회관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가? 그는 아마도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이 갖기 쉬운 기념비적 요소에서 탈피한 친근한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추구한 것이며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시골마당에 깔린 명석같은 옥외공간의 분위기와 압도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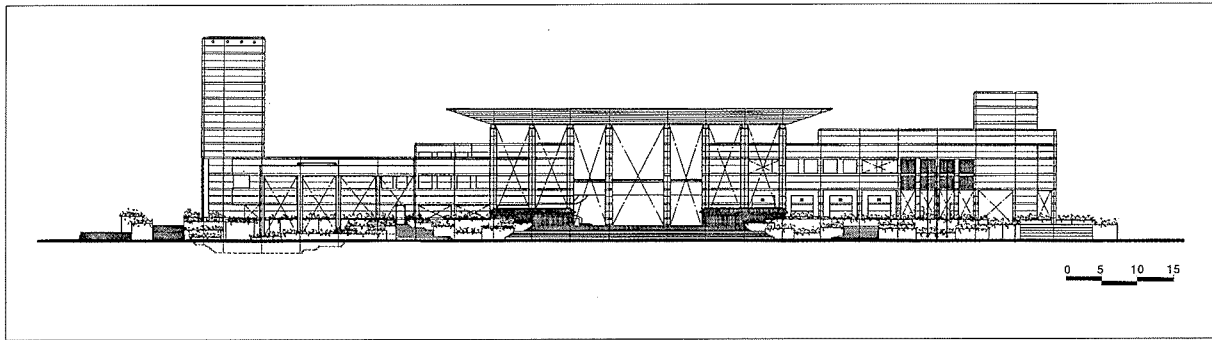


서측전경

고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하고 천막같은 분위기의 건축을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진도향토문화회관의 설계과정에서 여건의 변화와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을 건축가가 어떻게 소화해내고 대응해 갔는기란 점, 다시말해 항상 최선이 아니면 실현을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가라고 하지만 초지일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변화시켜 나간 점과 그 변화방법 등이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준다. 건축가 자신은 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혼돈을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예술단위(Artistic Unit)'로 빚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독과 열정을 이해하고 모든 편린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건축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철학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뇌하는 건축가, 고집스러운 신념의 소유자 그러면서 우리의 것, 지역의 토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건축가, 항상 베투를 즐겨 쓰는 소탈한 그에게 무르익는 또 다른 작품과 마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면도

Jindo of Chulla-Namdo is the home of various traditional art and culture,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folk music and calligraphy, and a growing activity concerning these tradition has led to the necessity for a new culture center. The competition of Jindo Civic Welfare Center has appointed the proposition by architect Lyu Yun-chang, but due to financial limits and additional requests of the citizens, continuous changes has been made until its final realization. Since the external influences heavily acted upon this work of architecture, I would like to trace, before looking into the finished building itself, the long, changing processes and phases of this project. Only then would it be possible to comprehend the depth of the Welfare Center.

Early Scheme - Competition Entry Project

The site was on a hill 900 meters south-east of Jindo Municipal Office. Apart from the direction towards Jindo-up, the neighboring area was almost devoid of buildings, with long stretches of mountains and fields. The shape of the site was close to a square, but the approach from the principal road was made in a diagonal direction. In this site, the program of large and small auditoriums, exhibition space, managing offices, stores, rest areas and a cafeteria was requested.

The layout was made to present a frontality towards the two main roads, which the arranged the approaching road in a diagonal way. To the left of this was the parking lot, to the right the resting areas and outdoor stage, and on its front was the main plaza. The most clear intention of the designer was to divided the function into two parts - managing offices and exhibition space to the left, and the large auditorium to the right - and emptying their middle as an open space

connected to the rear road. The entry to the left and right buildings from the plaza made good use of the level differences and formed sunken gardens used as stores and the cafeteria. The Center was surrounded by traditional fences, or Dam, constructing a clear boundary and presenting intimacy to its users. The landscape planning for the plaza and the middle yard was also characteristic. This early scheme had a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along with structure system based on modules, presenting a crisp, modest and humble form.

A New Request an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cheme

Not much works of architecture get to be built as the architect envisioned them in the early phase of design. Jindo Welfare Center was no exception: it was subject to more requests of the clients, the change of materials, financial shortcomings, and the need for a strong symbolic form of mass value. The change in its size has been followed by the rearrangement of the composition and location of programs, and the middle yard was added with a ceiling to generate a new image. Some essential modif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ing road, from the principal road, comes to connection in a diagonal direction with the entrance plaza. This plaza, in order to be linked with the sunken space and the middle yard, forms a lifted deck.

Second, the functional programs and their composition, and the link between spaces has been altered. This is the part most heavily influenced by economical constraints. The obvious result of reducing the overall building area has been dealt by preserving the original structure while erasing and adding

parts. This, to one's relief, has produced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the depth of space by visual penetrations between them.

The redistribution of programs, however, has made a not so practical result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yard, the small auditorium on the left and the large auditorium on the right do not show punctuality,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version. The layout of programs and grouping zones in stories, has also produced many vertical staircases, is another point to be considered.

Third, the addition of the roof on the middle yard. This was, while maintaining the openness of the yard, to induce, by the roof and the row of columns,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masses and thus forming an integrated wholeness. The roof with an inverted shape of a traditional Hanok building's, along with the Dam which encircles the building enriches the overall image with a traditional touch. The strong symmetrical composition is subverted in various portions, such as the tower on the left, the piloti displaying the depth of space, a two-dimensional mass composition on the right, the surrounding Dam, and the stairway of the connecting bridge.

Whether the roof was intended to form a unification among spaces or simply to produce a formal effect is problematic. Whereas the formal scheme presented a clear orientation of the entrance, the developed plan, with a connection in different directions amid the forest of columns, has been somewhat obscured. The middle yard between dominating masses would have been differentiated from the main plaza, providing space for a different event, but the columns which substitute the openness seems to submitted be to function. They should not have been merely structural elements which support the roof, and should have been concerned more with spatial aspects. The effect of Dam, whether it renders a touch of tradition or is a meaningful component constructing a boundary, is also arguable.

The fourth point is related to the scale and the detailing. The fact that order, in Western architecture, functions as a criteria of scale is connected to their relational aspects between elements. The change in material of the columns which constitute the middle yard has resulted in an effect totally disparate from the architect's early intentions. There should have been more regard for the height of the column, the staircase, the location of Dam, the meetings of the column, the roof and the ground, since the detailing of wood structures and reinforced concrete, and their impressions are thoroughly different. Finally, on the expression through the colors and materiality of the finishing elements: this is also where the economical factor played a great part in. The initial plan to furnish the exterior surface with granite has been altered to a less priced stone tiles, which was a similar case in the interiors. Lyu has overcome this shortcomings of materiality through a sensitive interior design, with particular wood textured grids and a idiosyncratic choice of colors. The change in materials has emphasized, rather than the formal and spatial aspects, the intensified meaning of a culture center with a sense of intimacy, which can be discovered in both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Culture Center.

An Intimate Cultural Plaza For Traditional Art Activities

A civic center should not only perform its use and function but become an intimate and beloved place for the citizens. Most culture or art centers, however, which are not so rare these days, boast extravagant materials and

grand, monumental scale: they are often difficult to access, thus large volumes of space remains devoid of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In the case of Jindo Civic Center, various activities are held well over 100 times a year. It became an ordinary part of the citizens lives, and what's better, provides an attraction for the visitors who travel to this city during the weekend. It is nominally a landmark of contemporary Jindo which the citizens have enormous pride in. In a modest, comfortable atmosphere, the Civic Center surely satisfies its social, cultural role.

Notwithstanding the long and laborous process of the project's actualization and the various change in design which accompanied it, architect Lyu has succeeded in achieving several objectives: to present a fresh image from apparent spatial ideas; to display regionalism through refined forms and a traditional touch; by a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to produce an atmosphere of comfort and placidity; and finally, to show a fine example of material use.

The main objective of Lyu's approach to this center must have been to overcome the usual monumentality of cultural facilities and redefine them into an intimate building. A Culture Center should be like the middle garden, or Madang, of traditional housings, where comfortable mood and scale enables free and variant use of the inhabitants. The finished object clearly shows how the architect has controlled his imaginations, how he has built order from chaos, and how he has produced an artistic unit from them. Through his compassion to solitude and passion, receiving inspirations from every objects and expressing them into the work of architecture, we can read the architect's pursuit for essential values. With this, and his insight on traditional, regional meanings, we look forward to see another mature work in a recent future.



피로티 열주 사이로 보이는 후면 오픈공간